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무용교육의 필요성

* 박선우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학교폭력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III. 사회·정서 학습 및 사회·정서 역량
	IV. 무용교육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V. 결론

*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논문투고일 : 2022.01.28.

논문심사일 : 2022.02.03.

게재확정일 : 2022.03.01.

/Abstract

A study on the need for dance education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enhancement

Park, Sun-woo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examines the necessity of dance education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social emotional competence enhancement.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This study raised the necessity of dance education.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ovide opportunities for dance education,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provision of dance education, independence of the dance subject is necessary. Second, in order to activa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ance education programs, institutional changes are necessary.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dance education

<주요어> 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사회 정서 역량, 무용 교육

최근 언론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들의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확산(윤창수, “연예계,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 인과만과 어디까지 먼질까”, 서울신문, 2021. 2. 24.) 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연합뉴스V, “학교폭력”, 2021. 3. 5.), 연예인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의혹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차, 그룹 탈퇴 등 연예계 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임지영,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공정뉴스, 2021. 2. 3.) 학교폭력 피해 연예인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당시를 회상하며 힘들었던 심경을 드러내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운동선수의 학교폭력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 학교 운동부에서 201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고등학교 54건, 중학교 24건, 총 84건의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김도훈, “최근 5년 경북 학교 운동부 폭력 100건 발생” KBS NEWS, 2021. 3. 5.). 현재 활동 중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의 경우, 경기 참가 자격 박탈과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이소정, “학폭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동아일보, 2021. 2. 19.) 2021년 3월 1일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로 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학교 폭력 가해로 인해 퇴학 조치를 받으며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 신인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이 입학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대학의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한다(한진주, “운동부 학교폭력 가해자 무용관. 퇴학 댄 선수 지위 박탈” 아시아경제, 2021. 2. 24.).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오랜 시간 우울, 자존감 저하”(Klomek et al, 2010:282)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린 시절일수록 당한 기억이 생생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자신보다 편안히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복수의 심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박민규, 학교폭력 악순환 끊으려면, 가톨릭신문, 2021. 3. 7., 3234호, 11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감과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자살을 야기 시킬 수 있다”(권선애, 안석, 2012:9). 또한 “대인불안 호소 및 매끄럽지 못한 또래관계”(김모라, 진미경, 2019:102), “주의집중 저하, 위축, 공격성과 같은 정서행동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윤소영, 유미숙, 2011:72).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5년, 2009년, 2015년 3차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산, 학생 안전 및 상담 인프라 확충 등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 1. 15.)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양상 변화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 방지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재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 및 예방역량 제고를 위해 역할극, 뮤지컬 동아리와 같은 체험중심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1학생 1예술 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아와 초등 저학년부터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과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자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을 추진(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 1. 15.)하였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방식과 의사소통법을 교육하는 것이다(“학교서 감정조절·대인관계 가르치는 ‘사회정서교육’ 추진”, 매일경제, 2019. 9. 29.).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학생 1예술 활동과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제시한바 본 연구는 무용교육과 사회·정서 역량, 무용교육과 학교폭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질적연구의 일환인 문헌 연구를 통해 무용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와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으로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한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스컴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me too가 이어지면서(뉴시스, “줄 잇는 학교폭력 미투 국회, 가해자 처벌 강화 나설까”, 2021. 3. 8.)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의무)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2012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1차 조사는 4-5월, 2차 조사는 10-11월로 바뀌었으며 2020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매년 두 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연도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피해유형별 응답률

(단위: %)

구분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언어폭력	34.1	34.7	35.6	33.6
집단따돌림	16.6	17.2	23.2	26.0
스토킹	12.3	11.8	8.7	6.7
신체폭력	11.7	10.0	8.6	7.9
사이버폭력	9.8	10.8	8.9	12.3
금품갈취	6.4	6.4	6.3	5.4
성폭력	5.1	5.2	3.9	3.7
강요	4.0	3.9	4.9	4.4

출처: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1)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언어폭력의 경우, 2020년에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도 타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유형보다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은 코로나19 발현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양태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정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정부는 1)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제도, 2)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2005년~2009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2010년~2014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2015년~2019년까지 추진되었다. 현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목표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된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은 〈표 2〉와 같다.

표 2. 제4차(2020년~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세부사업

제4차(2020년~2024년)	
비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p>[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p> <p>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현장착근 지원</p> <p>[학교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p> <p>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p> <p>[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p> <p>유아 및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강화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장애학생·다문화학생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강화</p>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에서 발췌, 재구조화함

III 사회·정서 학습 및 사회·정서 역량

“사회·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정서지능 발달”(Goleman, D., 1996, 한창호 역, 2008:424),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어 개인의 발달 반영은 물론 정서, 감정 그리고 정서와 연결된 인지, 사고능력 증진에 초점을 둔 학습방법이다”(Kenneth, Barbara, 2011; 이정화, 이한주, 2009:92).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정서적 역량은 비인지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역량들로서 사회적인 능력과 자신의 정서에 대한 통제와 관리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미숙, 2019:17). “사회·정서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서에 대한 지각 및 관리능력 발달 및 개인적, 학업적 목표 설정과 사회적 지각 그리고 대인기술 활용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지속하며 학교생활과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의사결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학습의 과정”(Linda & Nick, 2003; 유영란, 2010:179) 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정서의 경험 및 표현을 조절함은 물론 타인의 입장과 정서까지 이해하여 원

만한 대인관계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학교생활에 있어 긍정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행동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반면, 문제행동은 감소시킬 수 있는 학습법이다”(김현정, 2020:28).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여 자신의 감정은 다스리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다루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을 형성”(이상수, 김은정, 이유나, 2014; 김현정, 2020:28)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회·정서 학습은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 훈련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발달과 폭력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포함한 교육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는 물론 정서발달, 인지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및 행동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정화, 2012; 이정화, 이한주, 2009:92). 정리하면 “사회·정서 학습이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기초로 사회·정서역량 및 인지적 역량 모두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정화, 이한주, 2009:105)이며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 성장과 적응이 수업, 연습, 피드백을 통해 가르치고 학습되는 활동”(김가현, 신태섭, 2020:295)이다.

학교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였을 때, “비행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중퇴를 감소시키고 자기 통제 및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Wilson, Gottfredson & Najaka, 2001:247)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청소년이 사회적 생활에서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면 문제행동으로 꺾힐 수 있는 공격적 행동, 학교폭력, 또래거부,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김성일, 2006; 김종진, 2016; 이옥경, 이진희, 2015; 이정화, 이한주, 2009:105)을 한다. 또한 “사회 정서적 문제와 사회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는 요인”(박민경, 2017:3)이며,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통된 특성으로 낮은 공감능력, 타인에 대한 낮은 배려 및 동정심,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높으며”(Olweus, D., 1994:1171),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이 부족”(Sullivan, Farrell, Bettencourt, & Helms, 2008; 백예은, 박지연, 2020:186)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학업과 지식 성장만을 강조하는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방법과 학교문화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사회·정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한다”(박우식, 2016; 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백예은, 박지연, 2020:186)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정서 학습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 및 해소하여 학교폭력을 감소”(김현정, 2020:29)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비행행동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사회·정서 학습을 통한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을 위해 사회·정서 경험이 교육현장과 같은 체계적인 환경에서 제공”(신현숙, 2011:85)되어야 한다. 학자 및 기관에서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 사회·정서 핵심역량

학자명	사회·정서 핵심역량
Payton, J. W., Wardlaw, D. M., Craczyk, P. A., Bloodworth, M. R., Tompsett, C. J. & Weissberg, R. P.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Merrell, K. W. & Gueldner, B. A.(2010)	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OECD SSES Big Five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력, 개방성, 외향성
김미숙(2019)	과제수행, 감정관리, 협력, 개방성, 타인관계

<표 3>에 의하면, Payton, J.W. 외(2000:179)는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4가지(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로 설명하고 있으며, Merrell, K.W.(2010:162)는 5가지(자아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으로 정리하였다. 김미숙 외(2018:22)에 의하면 OECD에서 진행하는 사회·정서에 대한 SSES(The 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설문에서는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5가지(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력, 개방성, 외향성)로 설정하였으며 김미숙(2019:45)도 5가지(과제수행, 감정관리, 협력, 개방성, 타인관계)를 사회·정서 핵심역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자 및 기관에서 정의하는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살펴본 결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면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자 및 기관에서 사회·정서 핵심역량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및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정서적 역량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량”(Aber, Brown & Jones, 1999; Aronson, 2002; Caprara et al, 2000; Durlak et al, 2011; Flay, Allred, & Ordway, 2001; Goleman, 2006; Greenberg et al, 2003; 김은정, 이상수, 2015:369)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및 비행행동은 낮추고 학교 생활 만족과 책임감 있는 올바른 행동을 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무용교육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술교육의 일환인 무용교육 분야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표 4>는 무용교육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표 4. 선행연구 정리 표

순번	연도	연구자	논문제목	연구내용
1	2007	남남경	무용 특기적성 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사회성과 학교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2008	문은인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학교수업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3	2012	정성희, 송현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 / 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초등학교 3학년 1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학교부적응 - 외현화, 학습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4	2013	김한별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상승에 효과가 있음.
5	2013	조현정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창작무용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창작무용수업 참여 집단이 정서적 안정성,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창작무용수업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성과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임.
6	2014	황지혜, 이화석	무용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신체자아효능감, 무용활동만족, 학교생활만족의 관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무용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체효능감(인지된 신체 자신감)은 무용활동만족(외재적 만족도)에 무용활동만족도(내재적 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학교행사)에 무용활동 만족도(외재적 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교우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에 영향을 미침.
7	2005	지민정	무용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 여고생 270명, 일반여고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참여가 사회성(협동성, 책임성,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무용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성(자율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8	2010	이건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방과 후 무용활동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과 후 무용활동의 기간과 빈도가 정서(생활태도) 발달과 무용활동의 기간, 빈도, 강도가 사회성(지배성, 사회성, 자율성)발달 에 영향을 미침.
9	2010	차수정	창작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창작무용프로그램 참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정서표현,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킴.
10	2012	강주경	학교 무용수업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수업 참여 주 1-2회가 주3회보다 사회적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무용수업 참여기간이 1년 이상일수록 학교생활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11	2015	이진선	초등학생의 무용 활동 참여가 사회성,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 활동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용활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표 4〉에서 순번 1~6번은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이며, 순번 7번~11번까지는 사회·정서 관련 선행연구이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성희, 송현주(2012:125)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기반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창작무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와 정서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조현정, 2013:61), “초등학생의 교사관계 및 학교수업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문은인, 2008:52), “교우관계, 학교규칙, 행사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나남경, 2008; 황지혜, 이화석, 2014)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울러 “방과 후 무용수업은 초등학생의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김한별, 2013:42),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진선, 2015:39)는 연구, “중·고등학생에게 무용교육은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강주경, 2012:55)는 연구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공격성 및 공감능력과 무용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에서는, “Laban의 Space Harmony 요소를 활용한 무용·동작 심리치료는 개인의 공간과 타인의 공간을 인지적이고 근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어 경계를 알게 하여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박상미, 박경, 2014:67)고 하였다. 더불어 “신체를 통한 움직임은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하여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움직임의 변화는 정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은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고 각자의 공간을 지키면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공

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박상미, 박경, 2014:67). 또한 “타인의 움직임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느낌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박상미, 박경, 2014:67).

아울러 무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에 무용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긍정적인 신체인식, 자존감 회복, 긍정적 정서 변화, 사회성 향상을 통한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목표로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들에게 무용교육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신체 및 심리적 상처로 인한 폭력성 및 우울감 해소, 낮은 자존감 회복, 의사소통 방법의 터득으로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미영, 2019:114) “무용교육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공격성 감소 및 공감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신예순, 채경선, 2018:205)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교육은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집단의 중요성과 조화, 협동심,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그룹을 형성하여 진행되는 무용교육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활동은 인간형성에 작용하는 일면과 타인과의 대인관계 결합으로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김한별, 2013:18). 이는 다시 말해 “무용교육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능력,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통해 참다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박선희, 1999:19)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정서적 학습의 원리를 무용교육에 적용시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한 연구들(이정화, 이한주, 2013; 이정화, 2012; 유영란, 2010)을 찾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작 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서표현,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변화”(차수정, 2010:139)를 주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자기지각과 자기관리 기술 발달, 사회적 기술 발달, 의사결정 기술 및 책임감 있는 행동 발달을 목적으로 무용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개방성, 사회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유영란, 2010:179)을 주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건미, 2010:119)고 하였다. 무용교육은 무용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이 가능하게 함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 순화를 하게하며, 무용이 지닌 감정표현의 기회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성에 큰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무용계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위한 연구,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까지 학교폭력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무용교육은

학생들의 공격성 및 적대감 감소와 정서적 안정성, 교사관계, 학교수업 적응, 교우관계, 학교규칙, 행사참여 등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공감능력인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정적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무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코로나19 발현으로 인한 학교 교육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회성 또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였다.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회·정서 역량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 및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목표 수립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가능하도록”(Greenberg, et al, 2003:466)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 정서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정서교육 중 무용교육은 미적인 움직임을 추구하여 정신적, 미적 운동, 풍부한 표현력을 갖춘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정서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경험은 건강한 신체 발육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억제된 감정을 해소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집단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조화, 통일, 협동심, 사회성, 리더십 등을 습득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김한별, 2013:18).

무용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표현이다. “창조적 표현은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단체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및 관계유지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Bandura, A., 1977:344). 창조적인 표현을 통한 “무용 창작활동은 신체활동 이외의 토론, 자기 통제 방법 등을 병행할 경우 학급에서 폭력적 우발행동을 감소”(Lynn Koshland, J., 2004:69) 시키기도 한다. “폭력적인 행동이 어린 나이에 다루어지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고 내면에 계속해서 남게 되면 이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표현이 된다”(Olweus, D., 1993:214)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타인과의 사교적인 어울림을 통해 상호작용을 배우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용교육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자신의 신체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개인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증가 시키며 자신의 움직임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타인의 움직임을 내가 공유 받는 집단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상승과 폭력성을 감소시켜준다. 특히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무용교육은 정서 순화와 사회적 협동심을 발달시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사회성 발달과 학교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이건미, 2010:119)을 한다.

예술교육의 일환이자 정서교육의 일환인 무용교육은 언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배출하고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이다. 무용은 자신이 내면을 표현하는 움직임에 대해 자신이 오롯이 책임져야하며 감당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절제와 책임감을 배우게 되며 타인의 내면을 표현한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그 움직임을 느끼고 이해하고 해석해야하므로 언어적으로 습득하고 표현하는 교육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며 상대와 자연스러운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게 된다.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인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 무용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예민하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과 자신의 감정을 정중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타인을 배려·이해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용교육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무용교육이 폭력성 감소,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학교생활 적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교육은 학교수업 적응, 교우관계 증진, 학교규칙 준수, 적극적 행사참여, 폭력사건 및 폭력적 우발 행동 감소, 공격성·적대감·분노감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무용교육은 학교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용교육을 제공한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체육교과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무용교육을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다. 무용교육 독립에 따른 무용교과 개설은 무용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일반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정서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무용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에 무용교과의 독립이 필요하다.

둘째, 무용교육은 자존감 회복, 긍정적 정서 변화, 사회성 향상, 우울감 해소, 의사소통 방법 터득, 협동심 및 사회성 함양, 참다운 인격체 형성, 정서 순화, 긍정적 자아 형성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효과는 무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에 효과적인 무용교육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무용교육·무용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접근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증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교육환경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학생들에 의한 무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강주경(2012), “학교 무용수업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중앙미디어디자인: 서울,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1).
- 권선애, 안석(2012),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9-57.
- 김가현, 신태섭(2020), “유아 대상 미술 기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293-319.
- 김모라, 진미경(2019),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학교 폭력 피해 초등학생의 대인불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1)**, 81-103.
- 김미영(2019),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무용프로그램 사례연구”,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 52**, 113-133.
- 김미숙, 서예원, 안해정 (2018),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II): 문항실험 및 예비조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이쌍철, 이호준,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II):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본조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일(2006), “뇌기반 학습과학: 뇌과학이 교육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인지과학회, **인지과학 17(4)**, 375-398.
- 김은정, 이상수(2015), “사회와 거꾸로 수업에서 중학생의 학습양식, 사회정서역량, 학업성취도 및 수업만족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367-387.
- 김종진(2016), “학습에서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신경과학적 고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뇌교육연구소, **뇌교육연구 17(3)**, 71-95.
- 김한별(2013), “방과 후 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정(2020),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난타 프로그램 개발”,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23-42.
- 김화숙(2010), “무용과 정서지능 관계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1-22.
- 나남경(2008), “무용 특기적성 교육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은인(2008),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민경(2017),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관계의 종단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3(3)**, 147-177.

- 박상미, 박경 (2014), “학교폭력가해청소년의 공격성 및 공감능력과 무용/동작 심리치료와의 관계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4(2)**, 53-73.
- _____(2015), “Space Harmony 요소를 활용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가해 청소년들의 공격성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박선희(1999), “초등학교 무용특별활동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우식(2016), “외국의 사회정서학습이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미국·영국·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31**, 1-28.
- 백예은, 박지연 (202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정서 행동장애연구36(3)**, 185-210.
- 신예순, 채경선 (2018),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을 위한 움직임 활동 프로그램 연구”,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사회복지경영연구 5(2)**, 205-223.
- 신현숙(2011), “교과수업과 연계한 학급단위의 사회정서학습: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학교관련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10(1)**, 83-110.
- 여윤정(2005), “초등학교 여아의 공격행동 감소를 위한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유영란(2010),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학습을 위한 무용 교수-학습전략의 효과”,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연구 8(3)**, 179-194.
- 윤소영, 유미숙 (2011), “일반건강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59-75.
- 이건미(2010), “초등학생의 방과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2**, 119-133.
- 이상수, 김은정, 이유나(2013), “사회과 갈등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서학습 모형 개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52(4)**, 121-134.
- 이옥경, 이진희 (2015), “유아의 정서지식과 사회적 능력 및 기초학습능력과의 구조관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347-370.
- 이정화(2012), “중·고등학생의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표현활동 무용수업 모형 개발”,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51(1)**, 397-410.
- _____, 이한주 (2013), “고등학생들의 사회,정서 학습(SEL)을 위한 표현활동 무용수업 적용 및 개선 방안”,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91-116.
- 이진선(2015), “초등학생의 무용 활동 참여가 사회적,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학회지 15(1)**, 39-48.
- 정성희, 송현주 (201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125-147.
- 정지윤(2003), “무용교육을 통한 아동의 공격성감소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윤숙(1990), “무용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현정(2013),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창작무용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민정(2005), "무용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수정(2010), "창작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표현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예술학회, **무용예술학연구** 29, 139-159.
- 황지혜, 이화석(2014), "무용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신체자아효능감, 무용활동만족, 학교생활만족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37-52.
- Aber, J. L., Brown, J. & Jones, S. M.(1999),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Year 1 impact on teacher-reported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and child academic achieve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 Aronson, J.(Ed.)(2002),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Impact of Psychological Factors on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344-357.
- Caprara G. V., Barbaranelli, C., Pastorelli, C., Bandura, A. & Zimbardo, P. G.(2000), "Prosocial foundation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Science* 11, 302-306.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Flay, B. R., Allred, C. G. & Ordway, N.(2001), "Effects of the Positive Action program on achievement and discipline: two matched-control comparisons", *Prevention Science* 2, 71-89.
- Gerhardt, R. A.(1973), *Moving and knowing*, New Jersey: Prentice-Hall.
- Goleman, D.(1996), *Emotional Intelligence*, 한창호(역, 2008), **EQ 감성지능**, 웅진씽크빅, 서울.
- Goleman, D.(2006), *Social Intelligence*, Brockman Inc: 장석훈(역, 2006), **SQ 사회정서지능**, 웅진지식하우스: 서울.
- Greenberg, M. T., Weissberg, R. P., O'Brien, M. U., Zins, J. E., Fredericks, L., Resnik, H., Elias, M. J. (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58, 466-474.
- Kenneth, W. M. & Barbara, A. G.(2010),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신현숙(역, 2011), **사회정서학습**, 교육과학사, 파주.
- Klomek, A. B., Sourander, A. & Gould, M.(2010) "The association of suicide and bullying in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A review of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search finding",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5), 282-288.
- Linda, K. E. & Nick, E. (2003), "Fostering social-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Journal Article Education* 124(1), 63-48.
- Lynn Koshland, J., Wilson, B. Wittaker.(2014), "PEACE Through Dance/Movement: Evaluating a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26(2), 69-90.

- Merrell, K. W. & Gueldner, B. A.(2010), *The Guilford practical intervention in the schools serie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NY: The Guilford Press.
- OECD(2018), *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SSES)*, Introduction to the SSES.
- Olweus, D.(1993), *Bullying in the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UK/USA: Blackwell books.
- _____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yton, J. W., Wardlaw, D. M., Craczyk, P. A., Bloodworth, M. R., Tompsett, C. J. & Weissberg, R. P. (2000),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framework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reducing risk behavior in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70, 179-185.
- Sullivan, T. N., Farrell, A. D., Bettencourt, A. F. & Helms, S. W.(2008), "Core competencies and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2, 33-46.
- Wilson, D. B., Gottfredson, D. C. & Najaka, S. S.(2001), "School-based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 247-272.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m=02&boardSeq=83315>, 2021. 1. 20.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501&lev=0&m=02>, 2020. 1. 15.

국가정보법령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620#0000>, 2021. 12. 1.

김도훈, "최근 5년 경북 학교 운동부 폭력 100건 발생" KBS NEWS, 2021. 3. 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2513&ref=A>

박민규, 학교폭력 악순환 끊으려면, 가톨릭신문, 2021. 3. 7., 3234호, 11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55655

윤창수, "연예계,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 인파만파 어디까지 먼질까", 서울신문, 2021. 2. 2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4500195>

이소정, "학폭 운동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동아일보, 2021. 2. 1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8/105490671/1>

임지영,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공정뉴스, 2021. 2. 3.,

<http://www.fai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12>

한진주, "운동부 학교폭력 가해자 무용관.. 퇴학 댄 선수 지위 박탈" 아시아경제, 2021. 2. 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2415282061916>

연합뉴스V, "학교폭력", 2021. 3. 5.,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_H20210305015600038?did=1825m

“줄 잇는 학교폭력 미투 국회, 가해자 처벌 강화 나설까”,
뉴시스, 2021. 3. 8.,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226_0001353710

“학교서 감정조절·대인관계 가르치는 ‘사회정서교육’ 추진”,
매일경제, 2019. 9. 2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76798/>